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112호 감은사지삼층석탑



피리부는 랍

박수현

거친 풍랑에도

대종천 타고 삼층석탑 올라

만파식적 그리 깊이 부셨나요?

천년 사적 넘나드는

열두 가락에

호국의 뜻 담아 띄우셨나요?

다시 천년 후, 그 밤에도

김푸른 바닷길 트며 돌아오신다지요

그때, 용의 비늘은 시퍼렇게 살아나고

화랑들 말발굽소리 천지를 울리겠지요

우뚝한 동서 쌍탑도

뜨거운 가슴 열어 피리를 불겠지요

춤추며 한 몸이 되겠지요

해와 달로 빛나는

수중대왕이시여!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박수현 시인은... 경북 대구 출생. 2003년 〈시안〉으로 등단. 시집 〈운문호 불어집〉 등.

“근대는 연결고리... 관련 조사·연구 필요”

불교계 근대 문화재 등록 추진 의미와 과제

불교계가 근대 등록문화재 지정 사업을 본격적 추진하기 시작했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진명)와 불교문화재 연구소(소장 미등)는 지난 6월부터 '등록문화재 제도 분석 및 근대문화재 목록화 사업'을 추진... 완료가 이달 말 보고서를 발간한다.

문화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주 신원사 소립원 불입상, 광주 원효사 아미타 후불탱, 진주 의곡사 괘불을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등록문화재에 올릴 예정이다.

이번 조사 사업과 등록문화재 지정 추진은 그간 미비했던 불교계 근대 문화 인식을 제고시키는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불교계는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등록문화재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불교문화재가 한국의 역사와 계를 같이 했을 정도로 소중한 가치를 가진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2001년 3월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시작된 등록문화재 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기독교였다. 12년 동안 시행된 사업에서 총 5백여 건의 근대문화유산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됐고, 그중 38건이 기독교 유물, 유적들이다.

불교의 등록문화재는 군산 동국사 대웅

기독교 근대문화재는 38건

불교는 고작 6건... 관심 시급

100년 내 문화도 재평가해야

역사 연속성 활용할 방안 마련

전을 비롯해 남양주 대흥사 대방, 만공선사 사리탑, 진관사 태극기 등 총 6건에 불과하다. 이중 구 동국원사 목포별원은 현재 목포 중앙교회로 사용되고 있고, 경주 구 서경사라는 측면에서 올바른 가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불교계의 전형적인 역사 인

종교·시대별 근대 등록문화재 현황

종교/시대별	조선	일제강점기	현대	계
불교		5	1	6
천주교		11	10	21
개신교		14	3	17
기타	1	10	3	14
계	1	40	17	58

식 개선과 연구 조사를 통한 근대 문화재 발굴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동국대 사학과 박사과정 김항기 씨는 '등록문화재 제도 및 현황 분석'이라는 제하의 연구 논문에서 "전국 사찰에는 수많은 근대 불교문화유산이 남아있지만, 관리 소홀로 유실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며 "근대 문화재 가운데 근대 불교사에 중요한 산물이나 현대로 이어지는 정신적 유산에 대한 조사와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대 불교문화재는 역사·문화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올바른 가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근대에 조성된 불교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목록

화가 필요하며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관리 시스템 정립과 활용 방안도 숙제"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은 "근대문화재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기독교에 치중돼 있다. 불교도 같은 시간대를 거쳐오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며 "이 과정이 담긴 유물, 역사 자료에 대한 관심과 보존이 필요하다. 종단에서 처음 동산분야 근대문화재에 대한 연구와 목록화 작업을 시행한 이유도 여기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종단에서 근대 불교문화재를 발굴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불교학계의 체계적 연구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에 보탬되는 일 하겠다”

자승스님, 직지사 주지 흥선스님 임명장 수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직지사 신임 주지 흥선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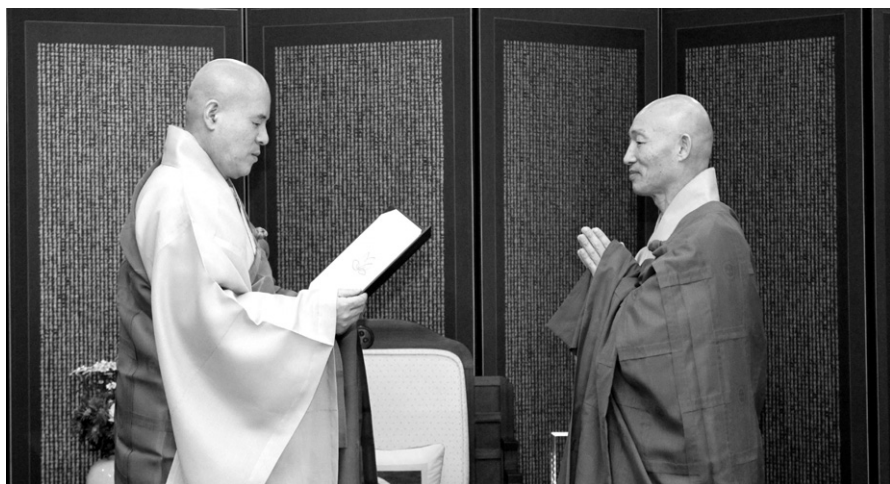
수여 직후 자승스님은 "흥선 스님이 있는 동안 불교중앙박물관이 너무 잘 운영돼 왔다"며 "다시 어려운 소임을 맡아주 감사하다. 직지사는 그동안 대적불사를 선도해왔는데 지금부터는 관리와 보존이 더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흥선스님은 "박물관과 관련된 몇 가지 일들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떠나 마

음에 걸린다"며 "종단과 불교 전체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차근차근 실행해 가겠다"고 화답했다.

흥선스님은 1974년 녹원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출가 이후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했다. 해인사승가대에서 수학하던 중 탁발을 한 것이 계기가 돼 30년간 금석학 연구에 매진해 왔으며, 2010년부터 최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장으로 활동했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22일 직지사 신임주지에 흥선 스님을 임명했다.

“분노 불신 넘어 화합의 길 가야”

주경 스님, 선재 포럼 종교인 대화서

새누리당 불교 조직 선재포럼이 주최하는 종교인 대화가 11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국민 통합과 행복을 위한 종교 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개신교 정신문화연구소 고병철 박사, 민족종교 김재완 사무총장, 천주교 서명원 신부 등이 참석했다.

불교계 대표로 참여한 주경 스님은 "종교는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오늘날 우리 종교는 상대방 종교를 불신하고 있으며 종교적 편향 등의 문제로 사회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이렇

게 되면 종교는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분노 불신 등을 제거해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가톨릭 서명원 신부는 각 종교계가 종교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개신교 고병철 연구원은 종교간 대화가 이론적·제도적·실천적 측면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민족종교 김재완 사무총장은 종교간 내부갈등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종교갈등 진단, 화합 상생의 길, 사회 문제, 행복 추구 등의 소주제를 골자로 각 종교계 대표들이 토론을 펼쳤다.

정혜숙 기자

조계종 교육원, 교수 아사리 위촉 공고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오는 12월 10일부터 28일까지 '2013년 조계종 교수 아사리' 신청을 받는다.

이번 위촉분야는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계율과 불교윤리 ▷참여불교 등 5개 분야이며, 신청 자격은 비구 중 덕, 비구니 정덕 법계를 수지한 승남 15년

이상의 스님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석사학위 취득 후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 등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관련서류와 함께 교육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조계종 교수아사리'는 매년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면서, 승가교육 발전을 위해 종단이 필요로 하는 연구를 담당하거나 종단의 승가교육기관에서 학인스님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종일 기자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포럼

불교의 명상 - 고대 인도에서 현대 아시아까지(Buddhist Meditation from Ancient India to modern Asia)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불교는 전체 아시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종교로서 새롭게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익숙하지 못했던 남방불교, 동아시아불교, 티벳불교 등과 같은 지역적 구분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으며, 교학적으로나 수행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서로 화합하면서 글로벌한 종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명상이야말로 사상적, 지리적 구분을 떠나서 아시아 전체를 관통하고 아시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성철 큰스님께서는 참선하는 것을 금강산에 직접 가는 것에 비유하시면서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성철 큰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이번 국제학술포럼은 아시아 각국에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불교의 명상을 좀 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참선하라는 큰스님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불교의 명상을 총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 일시 : 11월 29일(木) ~ 30일(金) * 장소 : 동국대 덕암세미나홀

<p>11월 29일(목요일)</p> <p>09:00 개회식</p> <p>기조발표 (사회: 조성택 교수)</p> <p>10:20 피터 스킬링: 불교의 명상 누가 독점하려 하는가?</p> <p>11:00 로버트 버스웰: 간화선과 동아시아불교, 동아시아의 독특한 명상법의 기원과 수행</p> <p>제1부 고대 인도 (사회: 우재선 교수)</p> <p>13:00 요하네스 브루코스트: 초기불교명상</p> <p>13:40 알렉스 위나: 브라만전통과 불교의 명상</p> <p>14:20 정덕 스님: 디비바다나에 나타난 인도불교의 명상</p> <p>제2부 동남아시아 (사회: 허남결 교수)</p> <p>15:20 케이트 크로스비: 테라와다 불교와 명상</p> <p>16:00 아티드 세라바닉콜: 탁신왕은 미쳤는가 위대한 보살인가 - 탁신왕의 전설에 나타난 명상의 중요성</p>	<p>11월 30일(금요일)</p> <p>제3부 동아시아 및 티벳 (사회: 김성철 교수)</p> <p>10:00 제레온 코프: 황소와 어떻게 해야 할까? 황소를 인도하는 수행에 관한 주석</p> <p>10:40 해원 스님: 당송대 선(禪)의 개오에 관한 인식 변화</p> <p>11:20 아힘 바이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 티벳불교 명상전통에 나타난 돈오적 요소</p> <p>제4부 한국 (사회: 미산 스님)</p> <p>13:20 찰스 윌라: 사면에 관한 선(禪)의 관점, 과연 우리는 그릇된 견해를 제거할 수 있을까</p> <p>14:00 윤원철: 한국불교명상과 돈오돈수</p> <p>14:40 서명원: 성철 스님의 명상</p> <p>15:40 종합토의 및 총평 (수치트라 & 황순일)</p>
---	--

문의_ 02)2198-5100

(재)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부설 성철선사상연구원